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깨우칠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없던 이스라엘사람 마노아의 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이 아이는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얼마 후,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기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게 자랐지만 부모님은 천사의 말을 기억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어느덧, 청년이 된 삼손은 힘센 장사가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삼손을 무서워했어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길을 가다가 사자와 만나면 그 사자와 싸워서 거뜬히 이겼어요.

하지만 겁이 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삼손을 잡아서 밧줄로 꼼꼼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을 묶은 밧줄들이 금방 끊어졌어요.

삼손은 아주 아름다운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들릴라는 아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삼손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블레셋의 높은 관리들이 들릴라를 찾아 왔어요.

“들릴라, 삼손의 그 무서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주게나.

어떻게 하면 삼손을 묶어서 잡아갈 수 있는지 알려만 주면 자네를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네.”

그날부터 들릴라는 삼손을 졸라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자 했어요.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삼손은 들릴라가 계속 졸라대자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어요.

“들릴라. 사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힘이 센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야. 만약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고.”

말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힘이 없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꼼꼼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삼손은 밧줄을 끊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고 그 때문에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서 못 보게 하고, 감옥 안에 있는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였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은 모두 큰 성에 모여서 삼손을 구경하고 조롱했어요.

삼손은 옆에 있는 소년에게 말 했어요 “나를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데려다 주게나!”

그리고 삼손은 그 건물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양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번만 나를 도우셔서 나의 원수를 갚게 해 주세요!

저는 이들과 함께 죽어도 좋습니다!” 삼손은 기도를 드린 후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어요.

순식간에 그 건물이 무너져 그곳에 모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들보다 더욱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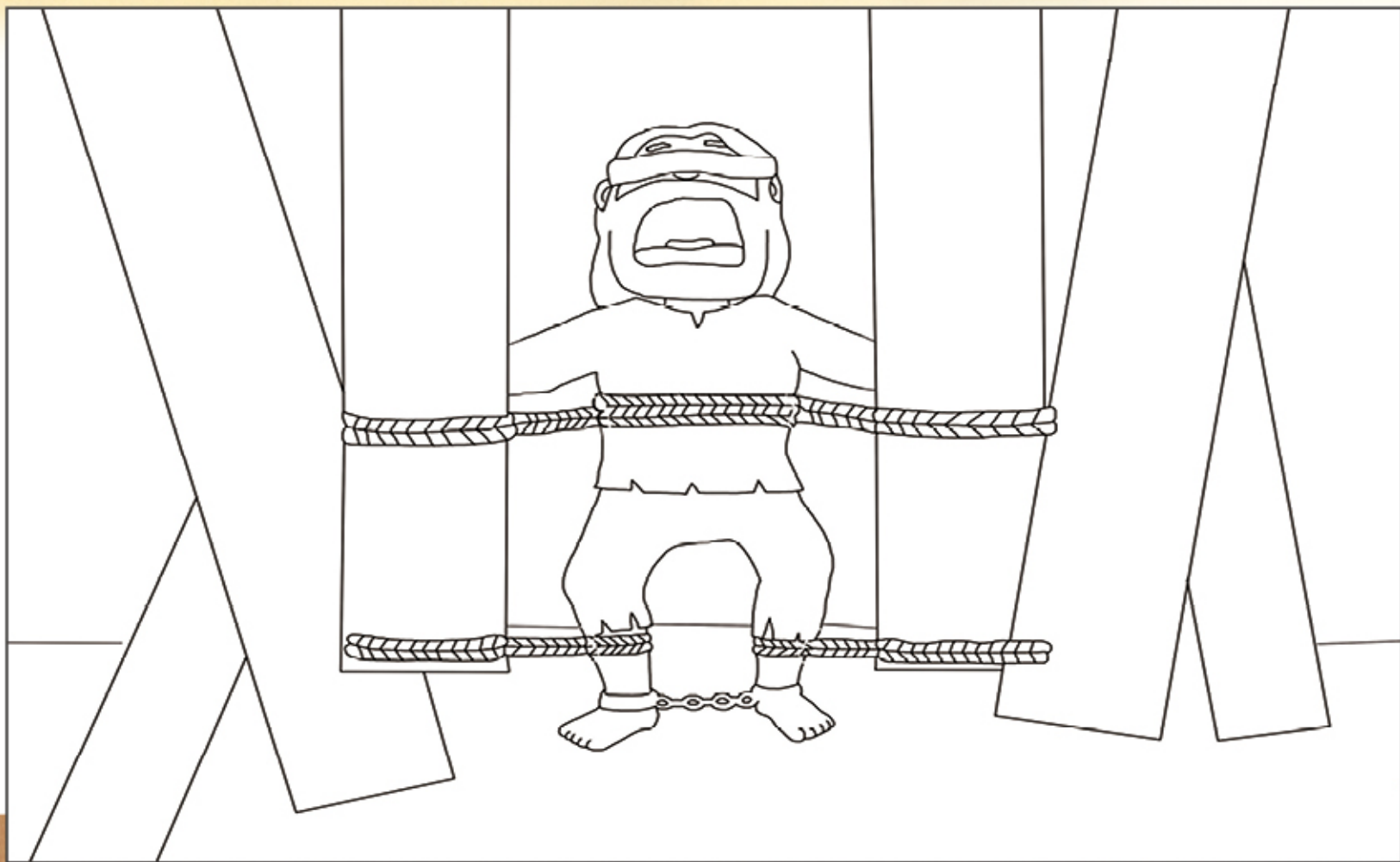
그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사사기16:20b)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활동 2.

점선을 따라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보세요.

